

최우수작

멕시코만의 산티아고에게

-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 -

김 수 은*

먼저 내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날 조금이나마 알게 될 테니까요.

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안에 바다와 접해있는 부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바다로 둘러 쌓인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내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당신의 삶 모두가 바다라고 느꼈듯이, 나도 내 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시간을 바다와 함께 하고 싶기에 이렇게 당신이 읽을 수도 또 내가 보낼 수도 없는 글을 띄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난 그저 힘없는 노인이 먼 바다로 나가 큰 물고기를 잡지만 상어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돌아온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없는 노인이 너무 불쌍했다는 기억만이 어렵듯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후로 덮어두었던 당신의 삶을 좋은 기회로 인해 다시 새롭게 알수 있게 되어 참 기뻐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내가 몰랐던 당신의 삶 전부인 바다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바다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바다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해양과학기술대학 해양에너지 자원공학과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84일이나 되는 날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는지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짓이었지 했습니다. 어떻게 근 세달 동안 한 마리의 고기를 낚지 못한단 말인가 하면서.

하지만 당신의 그 누더기 같은 배와 몹시 야원 당신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나도 마노린의 부모와 같이 그 84일 동안 당신이 정말 억세계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에겐 당신이 그 긴 기간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금 아니 그 보다는 조금 더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84일 동안의 당신을 동정하는 것이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또 여느 노인들 처럼 인자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동안의 날들을 뒤로한 채 당신은 또 다시 새로운 희망을 안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85일 되던 그날의 새벽을 기억합니다.

해도 아직 뜨지 않은, 어둠으로 둘러 쌓인 바다. 아늑한 적막감속에 이른 아침의 신선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당신은 먼 바다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난 당신이 그 새벽 바다를 나아가며 느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때 당신이 느꼈던 것은 오늘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왜인지 모를 뿌듯함,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온몸을 감싸고 도는 편안함과 알 수 없이 밀려드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예전에 한 두 번쯤 당신과 같은 이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해도 뜨지않고 별도 아직 지지 않은, 바다가 아직 자고 있는 새벽에 방과제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란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별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동쪽에선 태양의 붉은

빛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선 갈매기들이 소리를 내며 날았고 바다가 제 색을 찾으며 울렁거렸습니다. 짧은 순간에 엄청난 자연의 깨어남을 바라본 나는 너무나도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바다로 나가는 동안에 느낀 감정과 같다고 믿기에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당신은 비록 오랜 기간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매일같이 바다에 나갔으니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바다와 자연에 대한 감동을 셀 수 없이 받았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

당신이 먼 바다로 나가 사흘동안의 힘든 싸움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을 때까지의 과정과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거대한 고기가 사흘 동안 지치지도 않은 채 당신의 낚은 배를 끌고 갔을 때에도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지지않겠다는 더 큰 집착으로 고통을 참고 버텼습니다.

별이 찾아 들고 다시 새벽이 오고 또 다시 별이 찾아 들고... 그 동안의 외로움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이라 느낍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당신은 낚싯줄에 내려앉은 한 마리의 작은 새에게서, 하늘에 떠오르는 별이나 달, 바다를 돌아다니는 날치와 같은 고기떼에게서 친구임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은 청새치를 가엾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비록 그 큰 고기를 잡겠다는 결심은 누그러지지 않았지만.

어둠의 장막 속에서 해안의 아무런 불빛도, 등불도 보이지 않고, 바람소리와 돛이 당기는 소리만이 들려올 때 당신이 가진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곧 '인간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죽을 수는 있지만' 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당신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그 의지와 희망이 너무나도 멋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 또한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드디어 고기가 수면 위에 떠올랐을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작살을 내리치던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승리한 당신.

당신은 거대한 고기를 상어떼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온몸을 다 바쳐 싸웠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어떼

를 물리치기 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바다에서의 자신과의 싸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고기를 지키겠다는 일념은 무차별하게 덤벼드는 상어떼를 저지하는 몸짓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난 당신이 승리했다고 봅니다.

당신은 내일의 희망까지는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노린이 옆에있어 당신과 함께 얘기하고 도와주었다면 그 큰 고기를 그토록 힘들지 않게 잡고 또 상어들한테 빼앗기지도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청새치, 크게 보면 당신과 바다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의 힘든 싸움 뒤 집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남은 건 18피이트나 되는 거대한 뼈뿐이었습니다.

몹시 지친 당신은 배를 정리하고 배만큼 낡은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결국 졌단 말인가? 하지만 당신의 이 한마디는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결코 굶히지 않고 바다에 도전하려는 굳은 의지라 믿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당신과 같은 도전자를 원합니다.

바다는 사람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자연인 셈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조금씩, 조금씩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의 그 짜릿한 느낌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제일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아간다는 느낌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볼만한 참으로 매력적인 일 같습니다.

인간은 바다로 돌아가길 원하는 잠재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신은 비록 가난한 어부일 뿐이지만, 참으로 선택받은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이 바다에 대해 도전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바다는 인간을 구원할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는 근원적 향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며 바다의 모든 것, 그러니까 당신이 친구라 느꼈던 작은 새나 바닷바람, 날치, 청새치와 같은 것들과 하나가 된 마음, 바다의 큰 것부터 아주 작은 것들까지 이해하고 바다에

내가 포함된 듯한 그 큰 목에 나도 있다는 느낌은 정말이지 언젠가 당신처럼 늘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당신을 단순히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의 노인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잊고맙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그저 노인이 아닌 나의 삶의 지도자로 삼고 싶습니다. 앞으로 바다와 함께할 운명에 놓여 있기에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바다를 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다를 동경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을 알아 볼 수 있는 도전과 시련의 장이 될 수 있기에, 그리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것 같은 엄마와 같은 모습이기에.

산티아고!

나도 당신만큼 나이가 들고 또 당신만큼 바다를 사랑하게 되면 그 옛날 당신이 꾸었던 사자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황금 빛으로 반짝이는 한없이 길게 뻗은 해안의 백사장, 너무나 하얗게 반짝거리려 눈이 부실 정도인 그 해안가에서 뛰노는 사자들의 꿈을 말입니다.

추신 : 내가 당신처럼 바다를 사랑하기를 바다와 같이 깊은 마음으로 먼 곳에서나마 바라봐 주길 바라며.

이미 바다에 잠들어 있을 산티아고에게...

